



# 동행 'V11'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홈 개막전에서 이병규(7번)와 승부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KIA, 챔피언스필드서 세 번째 시즌 '뜨거운 함성'

### 윤석민·헥터·지크 등 막강 선발에 타선도 강해져



챔피언스필드를 뜨거운 함성으로 물들일 2016 시즌이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가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LG 트윈스와 홈개막전을 갖고 챔피언스필드에서의 세 번째 시즌을 열었다.

가장 첫 해인 2014년 8위라는 쓸쓸한 성적을 남겼던 KIA는 지난해에도 7위로 시즌을 끝내면서 새 안방에서의 가을잔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아쉽게 끝난 2015년이었지만 KIA는 시즌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의 중심에서 서면서 챔피언스필드에 온기를 불어 넣었다.

챔피언스필드의 밤하늘을 가른 승리의 함성도 8 차례나 울려 퍼졌다.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부터 끝내기포가 터져 나왔다. 3월29일 LG와의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필이 끝내기 홈런을 터트리면서 심상치 않은 시즌을 예고했다. 필은 이후에도 끝내기포의 주인공으로 여러 차례 등장했다.

4월23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필이 만루홈런을 터트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이호준의 끝내기 사구가 나오면서 승리가 더해졌다. 5월17일 두산전 끝내기의 주인공 역시 필이었다. 앞서 5월13일에는 베테랑 김민우가 끝내기 홈런을 날리며 홍건희에게 프로 첫 승을 안겨주었다.

7월23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백용환이 끝내기 홈런을 날리면서 그라운드를 들쭉고, 7월28일에는

김원섭이 감동 드라마의 주연이 됐다. 만성간염이라는 운동선수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도 1000경기 출장을 이뤘던 이날, 김원섭은 SK 정우람을 상대로 끝내기 스리런까지 터트리면서 잊을 수 없는 1000경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7월28일 필이 이를 연속 끝내기 승리를 장식했다.

8월7일 kt전에서는 끝내기 실책이라는 행운도 따랐다.

최하위 후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야구로 끝내기 행진을 펼치면서 챔피언스필드에는 71만141명의 관중이 찾아왔다. 평균 관중은 9863명을 기록했다.

올 시즌 KIA는 헥터-지크 두 특급 외국인 선수와 함께 윤석민을 선발전에 합류시키면서 새로운 진용을 짰다. 인내의 지난 시즌을 밀거름으로 해 타선의 힘도 강해졌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공격 본능이 심상치 않은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KIA는 75만6000명을 올 시즌 관중 목표로 내세우고 5일 72경기의 첫걸음을 떼었다.

끝내기 드라마를 연달아 만들어냈던 뒷집에 선발진으로 무개를 더한 KIA가 '동행'을 내세운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화려해진 라인업... 퓨처스리그 개막

### KIA 강한울·신종길·임기준·한승혁 등 출신 임창용·제대 손영민 오늘부터 함평서 새 출발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도 봄이 찾아왔다.

KIA 타이거즈가 성대하게 LG 트윈스와 홈 개막전을 치른 5일, 함평에서도 그들만의 개막전이 치러졌다. 1군 무대에 도전하는 퓨처스리그 선수단이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kt 위즈와 개막전을 갖고 새 시즌을 열었다. 특별한 행사도 없는 소박한 개막전이었지만 그라운드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층 탄탄해진 전력으로 시즌을 출발할 1군 선수단만큼이나 퓨처스 선수단도 탄탄해졌다. 1년 사이에 신예 선수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2군 엔트리 짜는 게 일이 됐다. 지난 시즌 김기태 감독이 많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테스트를 하면서 1군 경험을 쌓은 선수가 부쩍 늘었다. 퓨처스 경기용으로 2~3개의 라인업을 짤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이날 개막전 선발 라인업도 화려했다.

시범경기를 통해 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던 고졸 투수 김현준을 선발로 해 최원준(3루수)-강한울(유격수)-신종길(우익수)-박진두(지명타자)-황대인(2루수)-이인형(1루수)-이호신(중견수)-한승택(포수)-윤정우(좌익수)가 스타팅 멤버로 그라운드에 섰다.

김현준이 6.2이닝 5피안타 5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하고 내려간 뒤에는 좌완 임기준과 사이드암 박준표가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경기는 5-2, KIA의 승리로 끝이 났다.

경기 출전을 기다리는 선수들은 물론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도 줄을 섰다. 특히 마운드의 전력 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팔꿈치 부상으로 잠시 쉬어갔던 한승혁이 2군에서 새 시즌을 열었고, 군복무를 끝내고 복귀를 준비하는 선수들도 있다. 우완 김종훈이 사회복무를 끝내고 이미 함평에서 몸만들기에 들어갔고, 오는 30일 소집해제를 앞둔 좌완 손동욱도 휴가를 맞아 함평 적응에 나섰다. 오랜 시간 팀을 떠나있던 손영민도 6일 군복무가 끝나는 대로 챌린저스 필드를 찾을 계획이다. 18년 만에 진정으로 돌아온 임창용은 6일부터 육성선수 신분으로 새출발을 한다.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타자들의 업그레이드도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KIA 퓨처스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정회열 감독은 5일 경기에 앞서 "오즘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농담을 했다. "속수에 있다가 언제든 실내 연습장에 내려와서 배팅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지면서 선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올 시즌에 앞서 챌린저스 필드에는 배팅 마신이 추가됐고, 그에 맞춰 실내연습장 그물망도 새로 설치됐다. "노력하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보여준 김기태 감독의 지난 1년과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호랑이 군단'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함평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 "불펜 투수들 몸이 근질근질해요"

### 덕아웃 T 특특

▲내 마음을 알아줘 = KIA 외야수 오준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지난 두 경기였다. 스프링 캠프와 시범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처음으로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그는 개막전 톱타자로 선발 출전하는 등 야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보냈다. 그러나 경험부족의 오준혁은 두 경기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5일 홈개막전에서도 선발 출전하게 된 오준혁은 배트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내 마음을 알아줘"라며 안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머느리도 몰라요 = 우천취소가 불러온 선발 등판 날짜의 변화. 지난 3일 NC와의 경기기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김기태 감독은 5일 홈개막전 선발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미 지크로 홈개막전 선발을 예고했었던 김 감독은 고민 끝에 윤석민부터 선발 등판을 소화하도록 했다. "윤석민의 가오(제면)도 있잖아요. 금요일에 지크가 불펜으로 던지도 했으니"라고 이유를 설명한 김 감독은 5일턴으로 윤석민이 10일 등판에도 나서라는 질문에는 "이건 조심스럽게 예고해야겠다. 오늘 던지고 상태 확인을 해

보고 정하겠다"고 밝혔다. 변수가 많아진 마운드. 선발 등판 날짜에 대해 질문을 받은 임준혁도 "잘 모르겠다. 머느리도 몰라요"라고 웃었다.

▲기본 예의 아니겠습니까 = 투수에서 해설위원으로 타이틀을 바꾼 서재응이 KIA의 홈개막전 현장을 찾았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은퇴를 선언한 뒤,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변신했다. 아직 정규시즌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은 그는 오는 7일 경기에서 해설위원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방승이 없는 날에도 경기장을 찾은 서재응은 "기본 예의 아니겠습니까. 발로 뛰는 취재"라고 웃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몸이 근질근질해서 있어요 = KIA는 NC와의 지난 2연전에서 불펜으로 특별 기용된 지크를 제외하고 심동섭, 광정철 두 명의 투수만 기용했다. 선발진의 활약 속에 불펜을 비축한 김기태 감독은 "아직 공을 못 던진 선수들이 있다. 몸이 근질근질해서 있어요"라고 미소를 보였다. 김 감독은 광정철의 깜짝 호투에 대해서는 "날이 더워지는 시점에서 광정철의 활약을 기대했었는데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부상으로 고생을 했던) 정철이랑 (한)기주는 트레이닝 파트에 특별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 코리안 메이저리거 8명 '아침형 인간' 돼 불까

메이저리그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외국인(미국인 이외) 중 한국인은 8명으로 일본인과 함께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5일(한국시간) 전날 정규시즌이 시작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개막 엔트리 선수 864명(부상자명단 포함) 가운데 미국 이외 출생자는 238명으로 전체 27.5%라고 보도했다.

238명의 80% 이상이 중남미 지역 출신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이 82명으로 가장 많고 베네수엘라(63명), 쿠바(23명), 푸에르토리코(17명), 멕시코(12명)가 뒤를 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8명으로 공동 6위에 올랐다.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와 이대호(24·시애틀 매리너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최지민(25·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은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로 당당한 이름을 올렸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부상자명단(DL)에서 올 시즌을 시작했다. 캐나다(6명), 파나마(4명), 콜롬비아·퀴라소(각각 3명), 브라질·대만(각각 2명)도 개막 엔트리에 포함된 메이저리거를 배출했다.

이대호 소속팀인 시애틀의 개막 엔트리에 포함된 외국인인 13명으로 전체 30개 구단 중 가장 많다.

/연합뉴스



KIA 최원준이 5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퓨처스리그 개막전 3회 2사 2루에서 박진두의 2루타 때 홈에 들어온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